

T 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비밀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V schedule table for June 26th, 2010.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00, 10, 20, 30, 40, 50 minutes.

상반기 최고 '명품 조연' 김응수

사극 '추노' '부자의 탄생' 이어 '나쁜 남자'서 활약

배우 김응수(49)가 올해 상반기 안방극장 최고의 '명품 조연'으로 떠올랐다. 하제의 사극 '추노'에서 '악의 축'인 좌의정 이경식 역을 맡아 미소 뒤에 서늘한 카리스마를 뽐냈던 그는 이어 코미디 드라마 '부자의 탄생'에서 까칠하고 간간하지만 지식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기업체 회장 부귀호로 변신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런 그가 SBS TV '나쁜 남자'에서는 한 자살 사건의 배경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배틀링 형사반장곽완환으로 극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며 웃었다. '나쁜 남자'는 '눈의 여왕'에 이어 이형민 PD와 다시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다. "복수에 눈이 먼 주인공 건축(김남길 분)을 옥죄면서 그의 복수를 방해하게 되죠. 앞으로 건축과 곽 반장의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김응수는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하던 1981년 극단 목화학의 단원이 되면서 연극계에 입문했다. 그러다 1989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영화학교에서 연출을 전공해 졸업한 후 영화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일본 영화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가 교장을 맡던 시절 최우수상을 받으며 일본영화 학교를 졸업한 그는 1996년 김상진 감독이 일본에서 촬영한 '광개수암'을 시작으로 '투깝스' '주유소 습격사건'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 등 김 감독의 작품에 줄곧 출연하며 감초 연기를 했다. 이후 '그 때 그 사람'



들'과 '타짜'에도 출연하며 영화를 무게감을 실었다. 그는 하반기 정지훈과 이나영이 주연을 맡은 '도망자'와 함께 뮤지컬 '남한산성'에도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또 다시 넓힌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젊어 보여요. 다들 즐겁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며 사니가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EBS 플러스1 and EBS 플러스2 program listings.

케이블 가이드

Cable guide table with columns: 채널 TV, 케이블, SBS Plus, 온스타일, 채널CG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비밀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V schedule table for June 26th, 2010.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00, 10, 20, 30, 40, 50 minutes.

“개 컨디션 맞춰 촬영 황당했죠”

영화 '마음이' 2도둑역 성동일

"갑작 놀랐어요. 아무리 달이가 주인공이지만 개 컨디션에 맞춰서 하라니.. 어느 날 촬영장에 갔더니 달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안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 못 했죠." 다음 달 22일 개봉하는 영화 '마음이 2'는 '마음이'로 출연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암컷 '달이'가 주인공이다. 영화는 새끼 달이를 도둑맞은 마음이가 필사적으로 자식을 찾는 여정을 그렸다. 주현과 수애가 주연한 '가속'에서 뜨거운 부상대로 감동을 끌어낸 이정철 감독이 연출했다. 성동일과 김정태가 마음이의 새끼를 훔치는 형제 도둑으로, 송중기가 마음이의 주인으로 나온다. 성동일은 말 못하는 동물과 일하려는 힘든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래도 나중엔 '너보다 내가 낫다' 했어요. 자막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고 알았어요? 돈을 받아도 주인이 받죠." 성동일은 영화 '나 홀로 집에'에서 도둑으로 나오는 조 폐시의 연기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예고편에서 성동일의 목소리는 그가 연기한 드라마 '추노'의 악당 추노꾼 천지호를 연상시킨다. 그는 "관객들은 나의 코믹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장치로 목소리를 가늘게 만들었다"면서 "추노' 때와 목소리 톤이 비슷한다 '마음이 2'를 먼저 찍고 '추노'에 출연했는데 영화는 드라마보다 늦게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웃음기를 걸어난 진지한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색하고 대답했다.



"살아보니 코믹한 게 제일 진지한 거더라고요. 목소리 낮게 깔고 눈 부리부리하게 한다고 진지한 게 아니에요.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내가 슬프고 답답하면 웃게 되더라고요." 구수한 사투리 연기의 비결에 대해서는 지방에 가서 현지 사람들이 쓰는 생생한 말을 직접 듣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BS 플러스1 and EBS 플러스2 program listings.

케이블 가이드

Cable guide table with columns: 투니버스, OCN, 드라마넷, 스토리온, 바둑 TV.